

속 마음

김재인 글 이혜승 그림



[교실 속 그림책222] 속마음

2019년 2월 1일 초판발행 2019-00222

| 지은이 | 김재인

| 지 도 | 최혜선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9671-65-5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머 리 말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으로 교육미술관 통로가 펼쳐내는 222번째 이야기이다. 교육미술관 통로의 창작 그림책은 공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현직교사와 어린이작가가 함께 만들어 낸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며 경이로운 감동을 준다.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했던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가 2018년에는 학교 전체로 그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글 없는 그림책의 글 작가가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다. 졸업한 선배 어린이작가의 그림책에서 그림만 남기고 글은 모조리 제거했다. 그림만 남은 그림책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전교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부탁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써주세요."

아이들은 같은 그림을 가지고도 저마다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원작인 교실 속 그림책 『영킨 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다. 선배의 그림과 후배 어린이작가의 글이 만나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2차 창작물이 탄생했다.

수업을 진행하시던 6학년 1반 최혜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써 내려간 흔적을 사려 깊은 눈으로 살펴보셨다. 아이가 슬그머니 그림책 속에 털어놓은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주셨다. 선생님께서 그림책 뭉치를 품에 안고 교실 문을 두드려주신 덕분에 이 작품들과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작품을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펼쳐놓은 창작의 세계에 감격했다.

중학생이 된 어린이작가 이해승에게도 후배 작가들이 쓴 그림책을 전해주었다. 후배들의 작품을 살펴보던 혜승이가 이렇게 말했다. “와 선생님, 동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게 혜승이의 그림과 재인이의 글이 만나서 교실 속 그림책 『속마음』이 탄생했다. 재인이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그림책을 창작했다. 이번에는 자기 내면의 감정과 목소리를 실에 담아서 풀어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표현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살피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속마음을 발견할 때도 있다. 스스로에게도 숨겼던 나의 진짜 마음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한 뼘씩 더욱 성장한다. 지난 3년 동안 재인이는 한 뼘 두 뼘 몰라보게 성장했다. 그 과정을 그림책에 함께 담아낼 수 있어 행복하다.

작가의 말

어린이 작가 중 평소 존경하던 작가님인 이혜승 선배님의 그림에 글을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제가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친구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또래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글의 소재를 생각하곤 합니다. 현재 인터넷 소설 앱에서 글을 쓰는 중인데, 글을 쓰고 조회수가 올라갈 때 가장 행복해요. 누군가 제 글을 읽어준다는 건 뿌듯한 일이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성평등에 관련된 책을 써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림책쓰기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보면서 '나도 그림책 작가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꿈을 이뤄서 행복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지요. 엉켜있는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 잘 짜여진 것처럼 살다 보면 어느새 지치게 됩니다. 감정을 퐁퐁 숨기다 보면 나 스스로도 진짜 내 마음을 모를 때도 많지요.

이 그림책을 읽는 독자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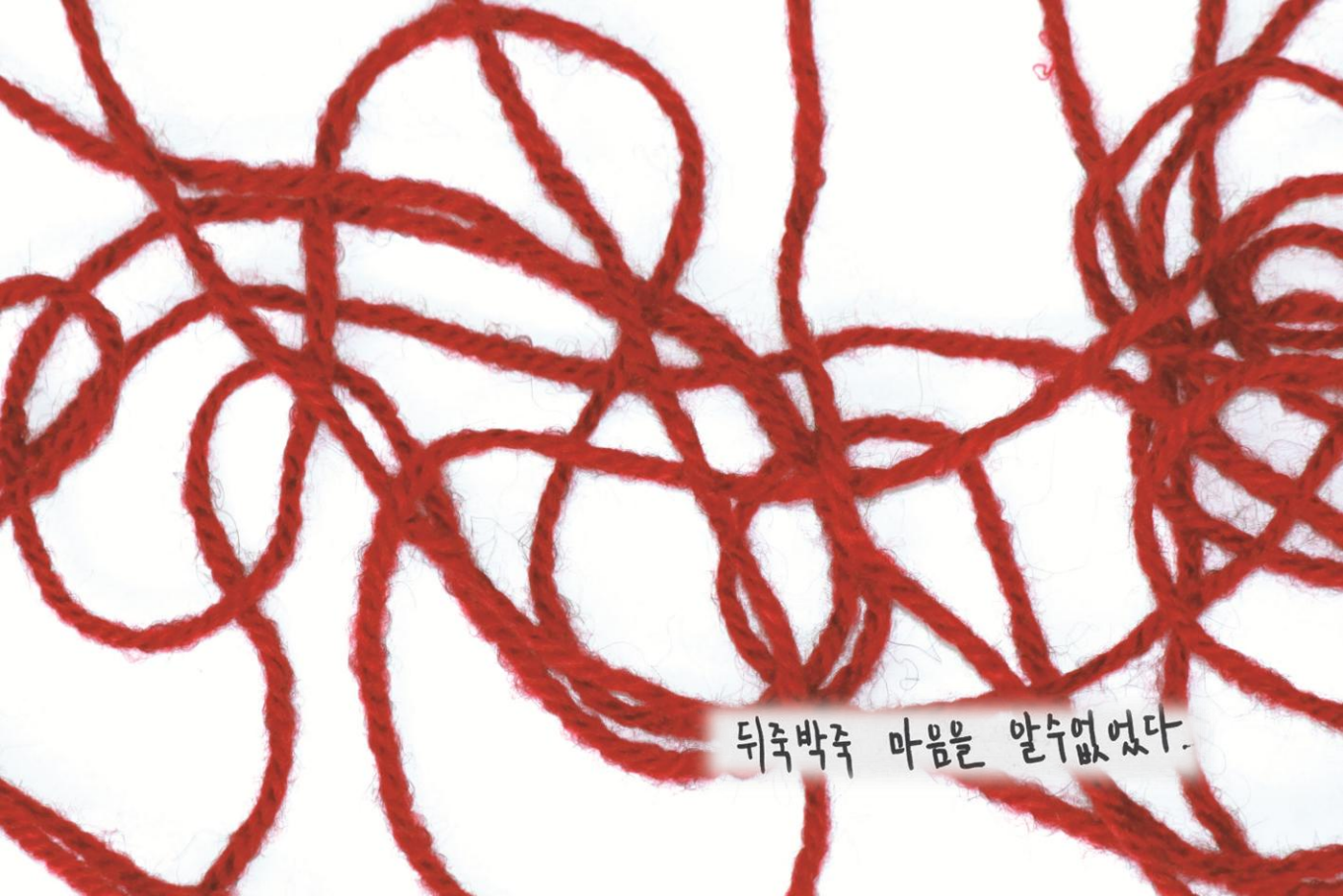
“자신에게 진실해지세요!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드러내세요!”

내 마음은 잘 짜진 목도리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뒤죽박죽 마음을 알수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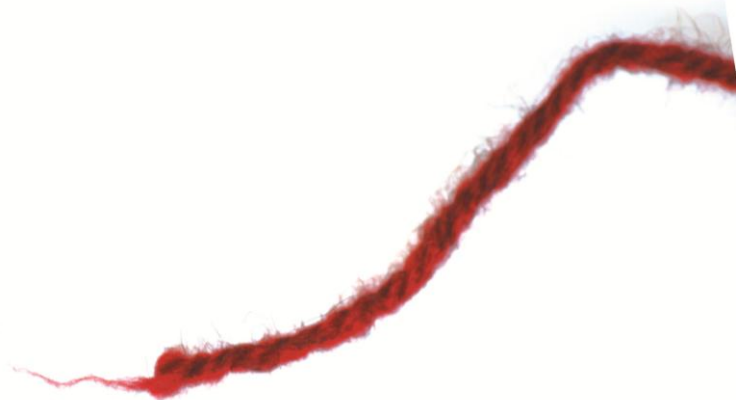


다른사람들은
영켜진 내 마음을
모르도록






관찰은 **척** 했다.



내 마음속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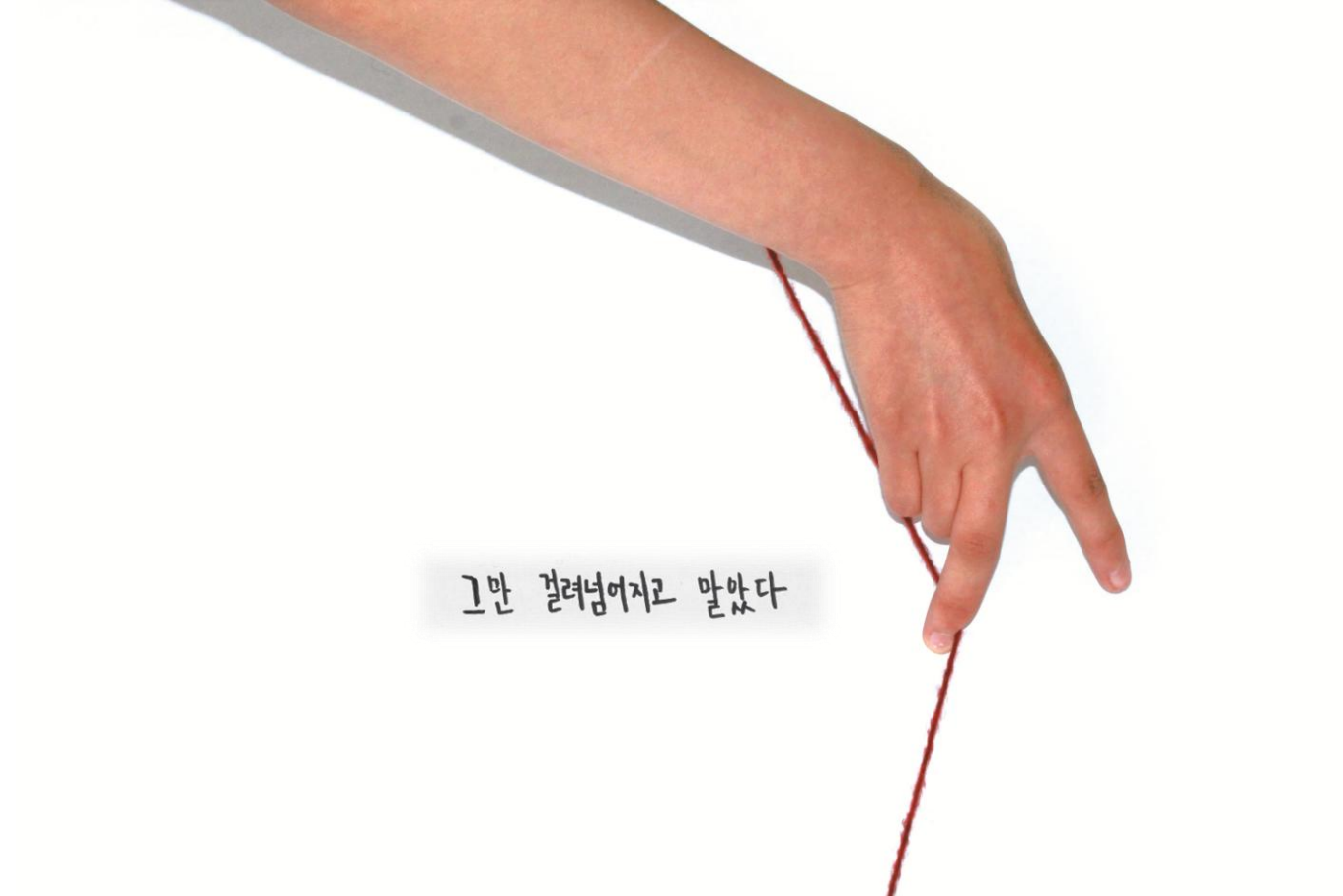
“네 감정을 잘 표현해야돼
안 그럼 사람들은 네마음을 몰라.”




솔깃한 말에 나는 그 마음을 따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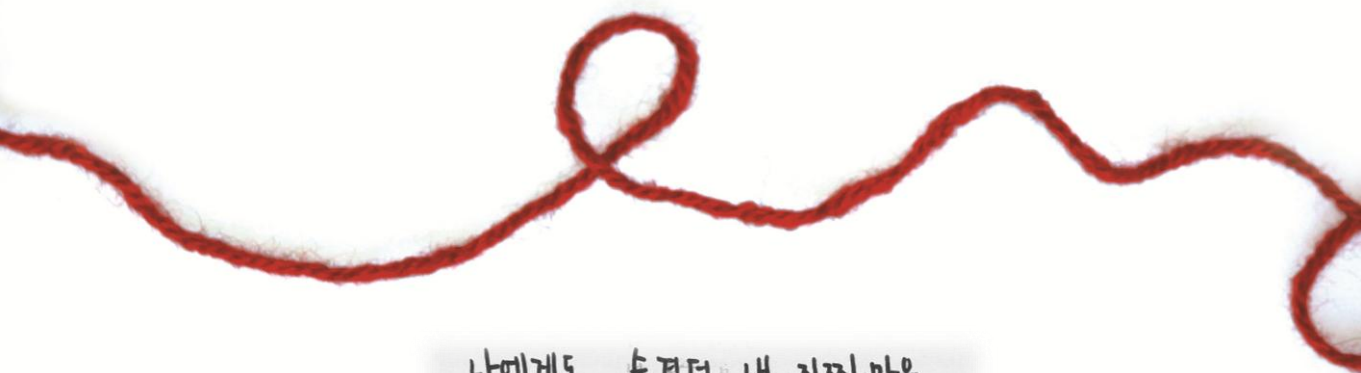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려고 했는데,

A close-up photograph of a person's right hand holding a thin, red string. The hand is positioned in the upper right quadrant of the frame, with the index and middle fingers gripping the string. The string extends downwards from the hand.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surface. A semi-transparent grey rectangular box is overlaid on the lower left portion of the image, containing Korean text.


그만 끌려넘어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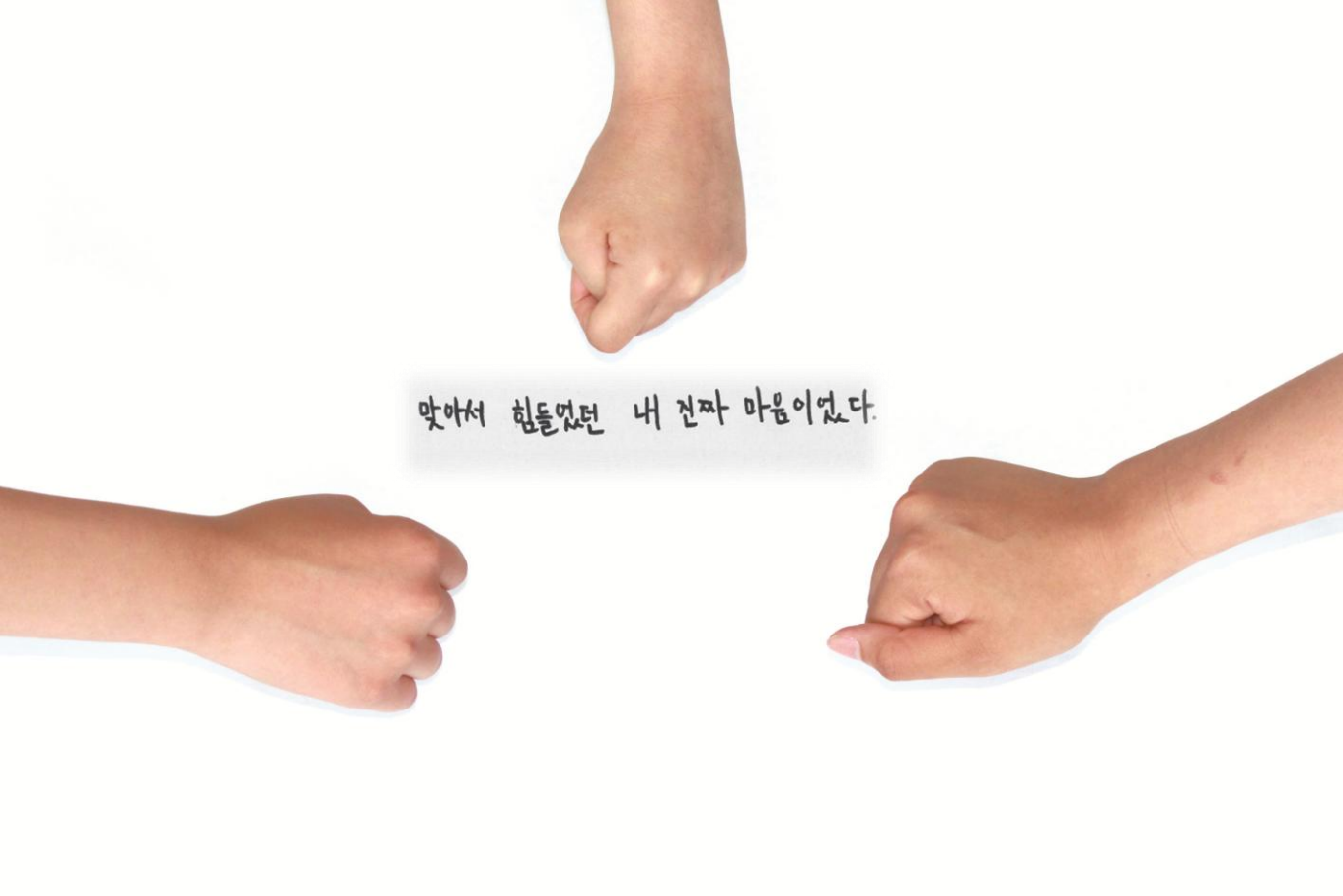
내가 걸러 넘어진것은 내 진짜 마음이었다




나에게도 숨겼던 내 진짜 마음

Three hands are shown pointing towards the center text. One hand is at the top, one at the bottom left, and one at the bottom right. The text is in the center, enclosed in a light gray rectangular box.

따돌림을 당해 슬프고

The image features three clenched fists, one at the top,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all pointing towards a central rectangular box. The box has a light gray background and contains Korean text. The overall composition is symmetrical and centered on a plain white background.

맞아서 힘들었던 내 진짜 마음이었다.



내 진짜마음은

복잡해서 뒤엉켜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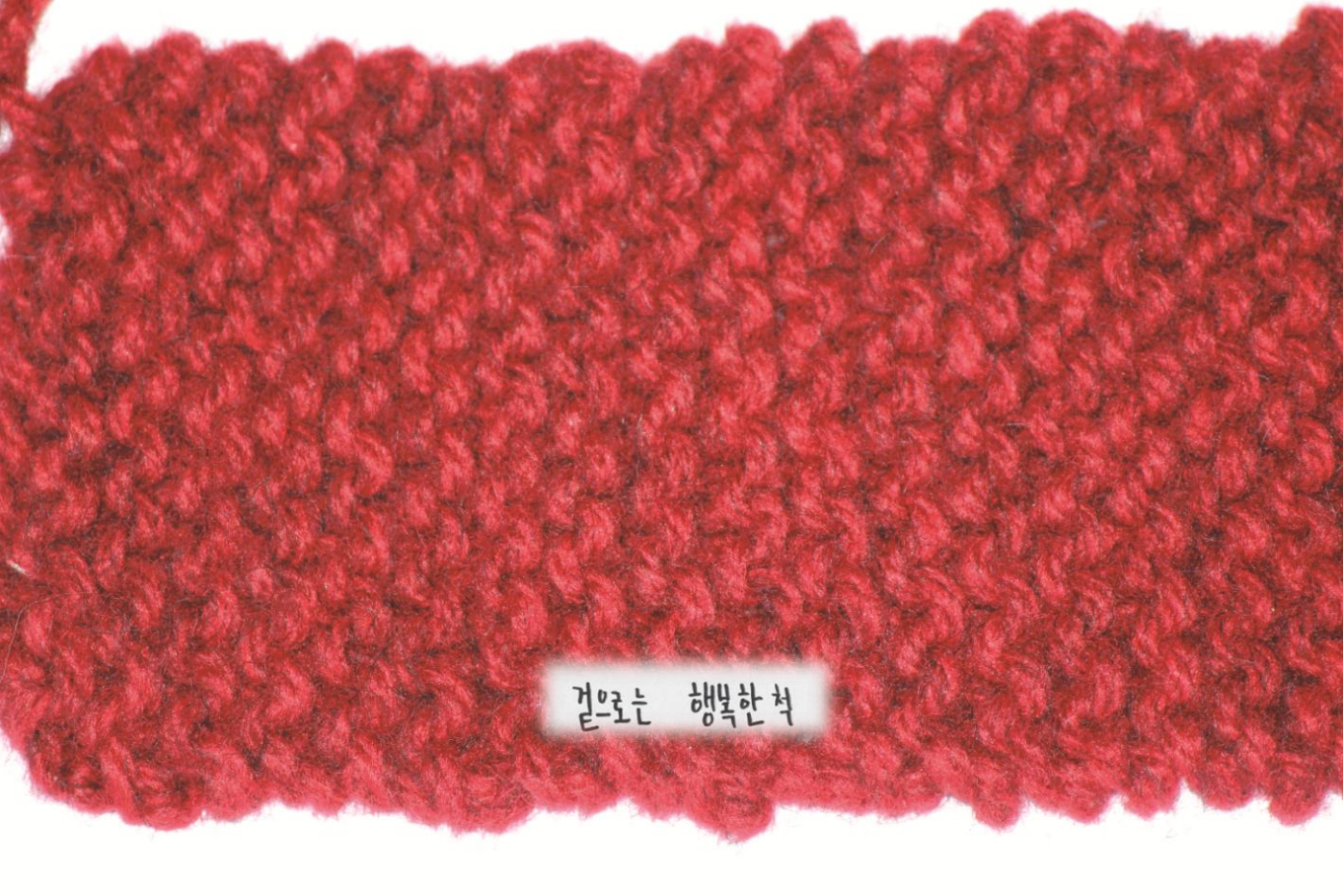


원래 내 마음으로 돌아가






내 마음을 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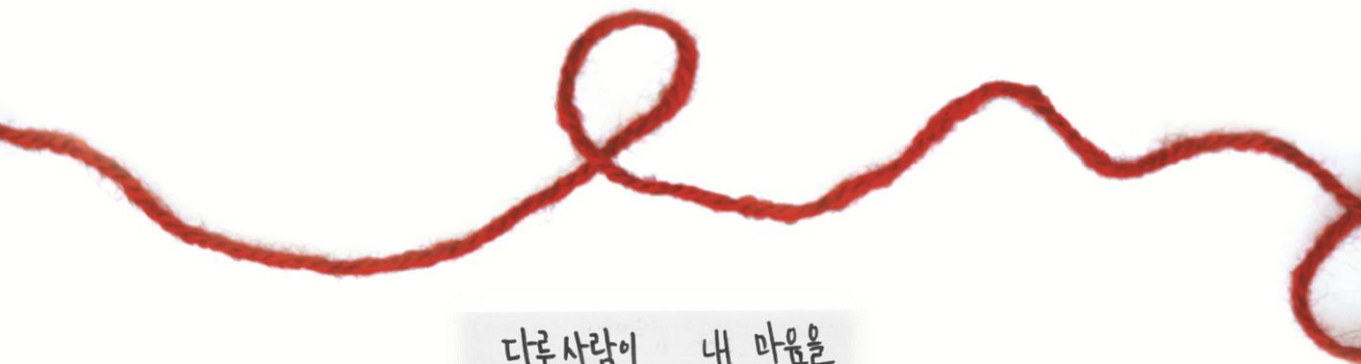
겨울은 행복한 척



속으로 늘터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행복해 질거다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할거다



다른사람이 내 마음을
알수 있도록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속마음[전자자료] / 지은이: 김재인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9

전자책 책

ISBN 979-11-89671-65-5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700708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7088)



비매품



ISBN 979-11-957446-9-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